



## III-2 조선 시대의 문학 [1] 속미인곡

### 모의 평가 1회 정답 및 해설



#### 정답 및 해설

1 ③      2 ②      3 ①      4 ⑤      5 ④

#### 1

| 정답 해설 | 이 글의 작가는 여성 화자를 내세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만, 여성의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①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있고자 하는 화자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.
- ② 중심 화자와 보조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- ④ 임의 부재라는 부정적 상황을 벗어나 임이 곁에 있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.
- ⑤ 임과의 이별에 따른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.

#### 2

| 정답 해설 | ⑥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‘반기시는 낮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.’로,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① ㉔: 천상, 백옥경, 이별 등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다.
- ③ ㉓: 춘한고열, 추일동천 등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다.
- ④ ㉒: 죽조반, 조석 등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다.
- ⑤ ㉑: 지척, 천 리 등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다.

#### 3

| 정답 해설 | ㉑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이해할 수 있다. ㉒에서 ‘구름’은 왕을 상징하는 해를 가려 보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㉑과 상통한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② 이 시에서 ‘구름’은 떠돌아다니는 존재를 상징한다.
- ③ ‘구름’은 분단된 조국의 하늘을 흐를 수 있는 존재로,

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자연물이다.

④ 세상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는 ‘구름’조차도 장성령 고개를 넘을 때는 쉬어 가야 함을 말하여 고개의 높음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소재이다.

⑤ 언제나 ‘도련님’ 곁에 존재하려는 화자를 상징하는 소재이다.

#### 4

| 정답 해설 | ‘낙월’과 ‘구 비’는 모두 화자가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있고 싶은 심정을 대변하는 소재이다. 따라서 ‘낙월’과 ‘구 비’ 모두 화자와 임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힌다고 할 수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①, ② ‘낙월’과 ‘구 비’는 임에 대한 사랑을 비유하는 소재이지만, 그것이 현재가 아닌 죽음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극성을 지닌 소재라 할 수 있다.
- ③, ④ ‘낙월’은 하늘에 머무르며 임을 지켜보는 소극적 존재인 반면 ‘구 비’는 하늘에 머물지 않고 임의 곁에 가까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존재이다.

#### 5

| 정답 해설 | 이 글은 여성 화자를 내세워 부재하는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, 나랏일을 근심하는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① 굴원의 ‘이소’에서 ‘미인’은 ‘임금’을 표현한 것이다. 이 글의 제목이 ‘속미인곡’이라는 점과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.
- ② 굴원이 ‘이소’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 글과 연관성이 있다.
- ③ 굴원의 ‘이소’가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빗대어 임금에 대한 충심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이 글의 화자와 의 관계를 정철과 왕의 관계로 볼 수 있다.
- ⑤ 이 글에 나타난 임에 대한 사랑을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본다면 이 글은 충신연군지사에 속한다.